

재난발생시 TV방송 ‘무엇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나?

*이연

선문대학교

*leeyeon@sunmoon.ac.kr

‘What’ and ‘how’ should TV programs broadcast when disasters occur?

*Lee, Yeon

Sunmoon University

요약

‘재난방송’ 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피해주민들에게 전달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재난정보를 전달하는 재난전달시스템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실제로 ‘재난방송’ 이라고 말하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방송하는 것이 재난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본래의 재난방송의 의미라고 하겠다. 즉, 재난방송은 전달하는 내용이나 전달 방법에 따라서 전달효과(impact)가 달라서 재난방송은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준비된 방송내용과 전달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고는 2011년 3·11 동 일본대진재 당시 일본의 텔레비전방송은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방송했는지를 자세하게 분석해 본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주요방송 3사인 NHK, 니혼TV, 후지TV의 3일간 실시한 재난방송의 ①기본화면과 ②전달내용 등을 분석 해 보기로 한다. ①NHK의 경우는 아나운서나 기자, 해설위원 등 자국 직원이 전달하는 비율이 80%를 넘고 있다. 외부 전문가는 4.4%로 소수에 불과하다, ②니혼TV는 자국 직원이 대응하는 비율이 75.6%로 비교적 높은 편이나, 외부 전문가도 8%나 된다. 후지TV의 경우는 직원이 대응하는 비율이 71.4%로 방송 3사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외전문가로는 13.3%로 NHK에 비해 3배 정도로 외부 전문가를 이용해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NHK 재난방송은 원고로써 정리된 정보를 주로 아나운서나 기자, 해설위원이 전달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을 기본패턴으로 하고 있다.

I. 서론

흔히들 우리는 ‘재난방송’ 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피해주민들에게 전달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재난정보를 전달하는 재난전달시스템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실제로 ‘재난방송’ 이라고 말하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방송하는 것이 재난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본래의 재난방송의 의미라고 하겠다. 즉, 재난방송은 전달하는 내용이나 전달 방법에 따라서 전달효과(impact)가 달라서 재난방송은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준비된 방송내용과 전달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는 2011년 3·11 동 일본대진재 당시 일본의 텔레비전방송은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방송했는지를 자세하게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주요방송 3사인 NHK, 니혼TV, 후지TV의 3일간(72시간) 실시한 재난방송의 ①기본화면과 ②전달내용 등을 분석 해 보기로 한다.

II. 주요 방송3사(①NHK ②니혼TV ③후지TV)의 중계시간과 전달내용

1. 중계시간

지진발생 초기 24시간 동안은 전 프로그램 중 중계방송시간이 40% 전후반대를 점령할 정도로 많이 편성했으나, 24시간이 지나면서 현장 중계방송은 서서히 줄어든 반면 스튜디오의 영상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①NHK종합TV의 경우는 최초 24시간 동안은 39.1% 정도의 현장중계를 많이 했지만, 24~48시간 사이에서는 14.6%로 대폭 감소하게 되고, 48~72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15.9%를 유지하게 된다. 일본의 민방인 ②니혼TV의 경우는 각각 37.9% ⇨ 20.7% ⇨ 16.5%로 낮아지게 되고, ③후지TV의 경우도 46.9% ⇨ 30.6% ⇨ 22.0%로 점점 떨어지게 된다. 3개 방송국 중에 후지TV는 72시간을 통해서 평균 33.2%를 생중계로 재난방송을 실시한 반면, NHK는 23.2%, 니혼TV는 25.1%로 후지TV보다 상대적으로 중계방송시간이 짧은 편이었다.

2. 중계내용

중계 내용의 측면에서 보면, ①NHK종합TV의 경우는 <쓰나미 모습>이 14.4%로 가장 많고, <쓰나미 피해> 11.5%보다 <쓰나미 모습>의 중계영상 상대적으로 많았다. 여기에 비해, ②니혼TV는 <쓰나미 피해>가 16.5%로, <인물>

12.9%나 <화재 모습> 10.2%보다 상대적으로 <쓰나미 피해> 중계가 더 많았다. ③후지TV도 <쓰나미 피해>가 23.2%로, <구출모습, 정보> 12.7%, <화재 모습> 12.0%보다 <쓰나미 피해>가 많이 중계 된 것으로 나타났다.

3. 전달내용 추세

제전달내용의 추세는 어떤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최초 24시간 동안은 방송3사 모두가 <쓰나미>에 관한 영상이나 음성물을 가장 많이 전달하고 있었다. 특히, 24~48시간대에는 <원전>에 관한 정보가 가장 많이 점령하게 되었다. 또, 피해자·피해지에 관한 정보인 <피해자 구조정보>는 최초 24시간 동안은 <쓰나미>와 같이 가장 많이 전달되었으며, 72시간 동안 방송3사 모두 10%대를 상회하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피해지를 위한 정보인 생활정보(life line)의 배분에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①NHK종합TV의 경우는 타 사에 비해 비교적 많은 양의 생활정보를 방송하게 된다. 특히, 음성정보는 72시간 전체 시간 중에 21.8%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여기에 비해 ②니혼TV나 ③후지TV의 경우는 생활정보가 상대적으로 적게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4. 생활정보와 피해자 정보의 전달

(1) 생활정보

방송 3사가 전달한 생활정보를 대별해보면, 크기는 ①정전 소식(계획정전 제외) ②교통정보 ③수도·가스 정보 ④전화·통신망 정보 ⑤병원·의원정보를 생활정보로 전달하고 있었다. 재난발생 72시간 동안 전달된 생활정보의 양을 분석해 보면 전체적으로 아주 적은 시간이 할당되었다.

위의 표를 보면 NHK가 각종 생활정보를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생활정보를 가장 많이 전달한 정보는 ②교통정보로 NHK종합TV의 음성정보가 7.6%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니혼TV의 음성정보로 4%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각 방송국 공히 ①정전 모습을 전달하는 방송이 2위를 차지했으며, ③수도·가스 정보 ④전화·통신망 정보 ⑤병원·의원정보의 순위로 전달했으며, 전달한 시간은 아주 한정적으로 적은 시간이 할당되었다. 교통정보 이외의 생활정보로 NHK의 경우는 진재관련 뉴스에 이어서 한정적으로 생활정보를 정리해서 전달하는 패턴이 정착되어 있는 형편이다.

(2) 피해자 정보

피해자에 관한 정보는 ①피난소, 피해자의 모습 ②피해자의 요망, 호소 ③구원에 관한 정보 ④구출 모습과 구출정보

로 나누어서 분석해 보기로 한다.

72시간 동안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분석해 보면, 방송 3사 모두 ①피난소, 피해자의 모습을 가장 많이 전달하고 있다. 한편으로 ②피해자의 요망, 호소에 관한 방송은 1% 이하에 머물고 있다. 또, ③구원에 관한 정보에서 가장 많은 전달한 후지TV의 음성정보의 경우도 2.5%, NHK종합도 1.4%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방송국에 따라서 전달 폭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이 ④구출 모습과 구출정보이다. NHK종합의 경우는 영상과 음성 공히 1%대로 비교적 적은 편인데 비해, 후지TV는 영상과 음성 모두가 7%대를 넘었으며 ①피난소, 피해자의 모습 경우도 7%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NHK는 재난발생 일의 경우는 ④구출 모습이나 구출정보보다는 ①피난소나 피해자의 모습을 전달하는 데 무게를 둔 방송패턴으로 옮겨가게 된다. 반면, 니혼TV나 후지TV의 경우는 ①피난소나 피해자의 모습보다는 ④구출 모습이나 구출정보에 더 많이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것은 아마 민방으로써 시청률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3)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자의 목소리

재난발생시 발화자, 즉 누가 재난정보를 피해자에게 전달(말)하고 있는가를 보자.

⑥피해자·피해지 사람들의 소리를 보면, NHK가 2.9%로 방송 3사중 가장 낮고, 이어서 니혼TV가 4.4%, 후지TV는 4.8%로 나타났다. 제일 높은 후지TV의 경우도 피해자의 목소리는 5%대를 넘지 못해 전체 발화자 중에서도 적은 편에 속한다. 지자체의 장도 주민을 대표해서 피해자의 공평을 호소하는 경우나 아나운서와 리포터가 피해자의 소리를 대신해서 코멘트 해 전달하는 예도 있었다. 하지만 방송 3사 모두 피해자가 처해있는 심각한 상황을 전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직접 자신들의 입으로 호소하는 호소력에는 못 미치고 있었다. 출연자, 즉 말하는 사람(화자)에 따라 방송국 사이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①NHK의 경우는 아나운서나 기자, 해설위원 등 자국 직원이 전달하는 비율이 80%를 넘고 있다. 외부 전문가는 4.4%로 소수에 불과하다, ②니혼TV는 자국 직원이 대응하는 비율이 75.6%로 비교적 높은 편이나, 외부 전문가도 8%나 된다. 후지TV의 경우는 직원이 대응하는 비율이 71.4%로 방송 3사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외전문가로는 13.3%로 NHK에 비해 3배 정도로 외부 전문가를 이용해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NHK 재난방송은 원고로써 정리된 정보를 주로 아나운서나 기자, 해설위원이 전달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을 기본 패턴으로 하고 있다. 반면, 후지TV는 스튜디오에 복수의 전달자를 배치해 비교적 자유롭게 발언하면서 진행되는 경향이 특징이다.

III. 결론

재난발생시는 피해정보, 생활정보, 복구 구조정보를 균형 있게 보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재난정보도 단계적으로 보도해야만 나중 사후 수습에도 어려움을 적게 겪게 된다.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선진국형 방재시스템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NHK放送文化研究所 『放送研究と調査』 (3月号)、2012年
- [2]NHK放送文化研究所 『放送研究と調査』 (5月号)、2012年
- [3]NHK放送文化研究所 『放送研究と調査』 (6月号)、2012年